

웁은 일이라 생각되면 힘들어도 끝까지 실천하려 노력



흔히 이시돌 하면 사료기업 보다는 비영리 사회사업을 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시돌이 태동된 것은 지난 1957년 ‘4-H 클럽 조직 가축은행’ 개설로써 ‘대한민국 농촌시책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재래의 농·축산 방법을 발전시키며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장려, 목야 개량, 생산물 가공 및 이에 수반되는 사회사업과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이시돌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문제로 현

재 진행중인 여러 사업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아일랜드 출신의 리어던 마이클 조셉(이하 마이클, 61세) 신부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호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호탕한 성격의 마이클 이사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가절감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시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한다.

마이클 이사장이 한국의 이시돌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학장의 추천으로 1978년 이시돌로 건너온 후 3년동안 수의사로 근무하다가 이시돌 설립자인 아일랜드 피 제 맥그린치 신부의 영향으로 신학에 관심을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1981년부터 5년간의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1986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활발한 선교활동과 사회사업을 펼치다가 2005년 6월 이시돌 이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시돌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2010년 12월 16일 공식적으로 취임한 이시돌의 마이클 이사장은 사회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지난 1964년 준공된 이시돌 사료공장과 이후로 건립된 성 이시돌 양로원, 피정의 집, 유치원 및 유아원, 젊음의 집, 무료 복지의원, 요양원 본관 증축 등 적극적인 사회사업과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마이클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경영이념은?

▲ 먼저 저희 법인에 대한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아닌 지역민들의 자립을 돕고자 196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법인 안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이시돌 사료공장입니다. 사실

형태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목장이나 사료공장의 탄생 배경과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서 농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것입니다.

보통 다른 영리법인의 경우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 재단법인은 법인의 성격상 사회 공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지역민들의 자립을 돕는다”라는 정관의 정신이 바로 저희의 경영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시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이시돌협회입니다. 1950년대 제주4.3사건과 6.25전쟁 등으로 참담했던 대한민국 제주에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온 한 아일랜드 선교사 사제(피 제 맥그린치)가 지역민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가난과 고립된 삶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단순한 자선물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야겠다는 창설자의 취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반응하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목장, 사료공장, 어린이집, 요양원, 성인들의 내적 치유를 돕는 피정센터,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젊음의집 그리고 말기암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병원인 이시돌복지의원 등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시돌 사료공장은 이러한 창립자의 뜻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사료를 공급하여 자립을 도왔으며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❶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❶ 창설자의 뜻에 따라 좋은 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젊음 이들의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성이시돌 젊음의집, 어린이집, 성인들의 내적 치유를 돕는 이시돌 회관, 요양원과 말기암환자들을 돕기 위한 복지병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목적사업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❷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사료산업에 대한 전망은?

❶ 국가 예산 배정에 있어 시대적 요청에 맞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우리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좀 더 치중하여 쓰도록 한다면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영향에서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합사료제조용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많은 대응책이 있을 수는 없겠으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원료를 직접 재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라든가 수입선의 다변화와 수입원료의 다양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료자원의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❸ 향후 가축질병 예방대책은?

❶ 가축질병 예방은 곧 생산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저희 재단은 목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에 이 같은 질병이 발병하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에 정답이란 없다고 봅니다. 각 농가에서의 보다 철저하고도 세심한 농장관리와 차단방역만이 가축질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 또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역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PED 발생으로 제주의 많은 양돈 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도로에 설치한 방역시설의 설치시기, 일관성 없는 방역 방법을 보면서 큰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국가 검역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장의 차단방역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❹ 앞으로 이시돌을 이끌어 나아가실 계획은?

❶ 창립자를 이어 2대 이사장이 된 저로

서는 2가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2대 이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창립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목적사업들이 길을 잃지 않고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현 시점에서 창립자의 정신을 올바르게 조명해 보고 그 정신을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협회가 생긴 1960년대와 지금은 분명 다른 시대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협회는 끊임없이 시대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살펴보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자립의 기반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④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목장에 대한 관심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목장을 넘어서 체험 교육목장에 대한 관심,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융복합 산업으로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④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 성격과 생활신조는?

④ 원칙과 신념에 있어서 저는 고집이 센 편입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면 타협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일단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원칙이나 신념에 벗어난다고 생각되면 물러나



성 이시돌 사료공장



성 이시돌 상

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심에 따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비록 내 자신이 힘들어도 끝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이러한 성향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글·사진 : 권영길 부장〉